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14.(수) 10:00
배포일시	2019. 8.14.(수) 08:00
담당부서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김정란(042-366-6101) 사 무 관: 민병희(042-366-6161)

통계청 통계교육원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 통통한 통계 –

(통통튀는 주제로 소통하는 통쾌한 통계포스터의 재미를 느끼다.)

□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전국 초·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 대회에는 지도교사와 함께 초등학생(4-6학년) 286팀, 중학생 628팀, 고등학생 1,253팀이 참가하였고, 수상자는 8월 30일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와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심사결과

○ **초등부 대상**은 학생들이 뉴스를 통해 플라스틱이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하다는 환경문제를 분리수거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알게한 경남 가고파초등학교의 「플라스틱이 돌아왔다!!」가 선정되었다.

○ **중등부 대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자전거의 안전 이용 실태 관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대전 문정중학교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이 선정되었다.

○ **고등부 대상**은 청소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카페인 섭취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카페인 섭취방법을 제시한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의「카페인 음료 똑똑하게 마시자」가 선정되었다.

※ 수상자 세부내역: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http://통계활용대회.kr)

□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북대 김용구교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환경, 안전, 건강관련 주제가 수상작이 된 것은 학생들의 통계적 사고가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가 지속될수록 참가자들의 주제 선정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및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반영한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 **대상 수상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초·중·고 각 1팀), **금상**에는 **통계청장상**(초·중·고 각 1팀), **은상**에는 **시·도 교육감상**(시·도별 초·중·고 각 1팀) 등 **상장과 더불어 소정의 장학금**과 2021년 국제통계포스터대회 출전 자격도 부여된다.

□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를 활용한 문제해결 역량과 소통은 다가오는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이라면서

○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실용 통계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명단 및 수상작(대상, 금상) 1부.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통계청이 작성한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명단(대상)

구분	작품명	학교	팀원	학년
초등부	플라스틱이 돌아왔다!!	가고파초등학교	이건우 김지윤	4
중등부	안전한 자전거 생활	문정중학교	이수인 박정현 권세린	1
고등부	카페인음료 똑똑하게 마시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윤성현	1

(초등부 대상) 플라스틱이 돌아왔다!!(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조사)

○ 최근 환경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이 높다는 기사를 접하고 생활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음

☞ 아이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생활 속 실천 방안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함

◇ 학생들의 주제를 풀어가는 방법에서 자체 설문조사와 함께 직접적은 실험을 적절히 활용하였고, 학교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부분이 의미 있음

(중등부 대상) 안전한 자전거 생활

○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 실태 점검 및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확립하고자 함

◇ 우리 생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범위의 개선방안 도출 및 지자체에 제안함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됨

(고등부 대상) 카페인 음료 똑똑하게 마시자

○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와 관련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올바른 카페인 섭취방법을 알아보고자 연구주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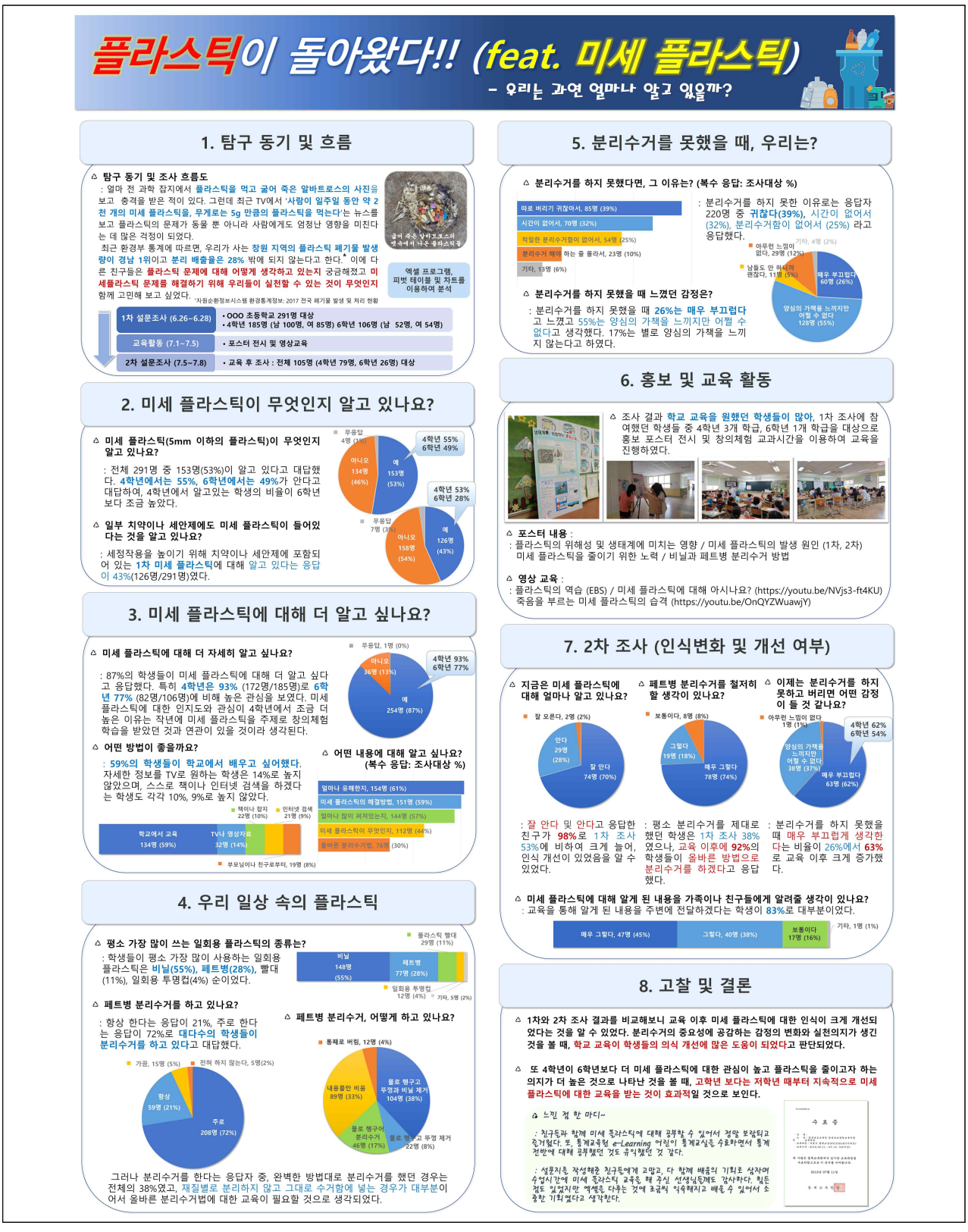
☞ 설문을 통한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카페인 섭취방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적절한 설문 문항 선정과 분석으로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실태에 관한 유의미한 분석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카페인 섭취 위험성을 자각하고 인식을 확산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됨

[붙임2]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대상, 금상)

□ 초등학교 대상: 경남 가고파초등학교(이건우, 김지윤/지도교사 김미애)



□ **중학교 대상**: 대전 문정중학교(이수인, 박정현, 권세린/지도교사 조병일)

안전한 자전거 생활

Beyond The Statistics

탐구동기

-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시민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 및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이나 교통신호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보행자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 우리 지역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자전거 생활 환경을 제안하고 싶다.

탐구목적

- 우리지역 자전거 안전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한다.
- 자전거 안전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전거 주행 실태를 관찰하고, 자전거 안전의식을 조사한다.
- 자전거 안전 이용 실태 결과에 기초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활동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사회에 자전거 안전환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탐구과정



- 우리지역 자전거 이용실태 및 자전거 도로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자전거 안전이용실태 및 이용 방안에 대한 탐구방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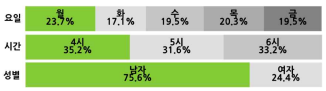
자전거 안전 이용 실태

자전거 주행 실태 관찰

- 대상 : 월-금 4시-7시 사거리 자전거 이용자 총 591명
- 방법 : 사전조사 통해 자전거 이용 많은 사거리 선정
  2019.6.10-6.15. 주행 실태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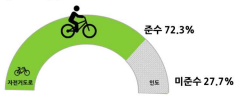


❶ 자전거 주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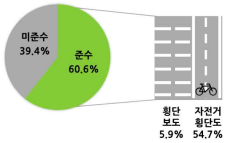
- 요일별, 시간대별 자전거 주행량 비슷. 성별에서는 남자 75.6%로 여자보다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

❷ 자전거도로 이용



- 자전거도로를 준수하는 이용자 72.3%, 인도 등을 이용하는 미준수 이용자 27.7%

❸ 횡단보도 주행 준수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바른 횡단보도 이용자 60.6%, 미준수 이용자 39.4%

❹ 안전모 착용



- 안전모 착용 이용자 5.6%, 미착용 이용자 94.4%

❺ 신호등 신호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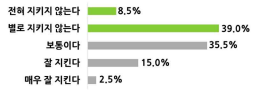
- 98.3%의 자전거 이용자가 신호등 신호 준수, 미준수는 1.7%

- 결과
  - 자전거 이용자 중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를 바르게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27.7%와 39.4%로 나타남. 특히 자전거횡단도 앞에 정차하지 않는 자전거 이용자는 바르게 횡단하지 않거나 자전거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됨 ➡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연결하는 유도선 설치 방안
  - 안전모는 5.6%만 착용 ➡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 홍보 및 교육 필요

자전거 안전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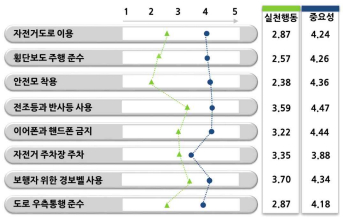
- 대상 : 10대부터 50대 이상 연령별 40명(남 20명, 여 20명) 총 200명
- 방법 : 2019.6.11-6.16. 설문조사

❶ 자전거 안전규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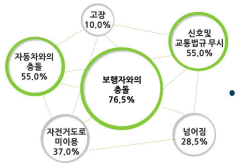
-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47.5%, 잘 지킨다는 응답은 17.5%로 낮음

❷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과 실천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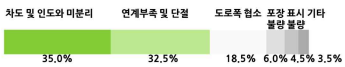
-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실천행동은 '보통' 혹은 '지키지 않음'으로 평가
- 전조등과 반사등 사용, 이어폰과 핸드폰 금지, 안전모 착용을 중요하다고 생각
-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안전모와 도로 우측통행 준수

❸ 자전거 위험요소



- 보행자 및 자동차와의 충돌, 신호 및 교통법규 무시를 자전거 위험요소로 인식

❹ 자전거도로 문제점



- 차도 및 인도와의 미분리, 연계 부족 및 단절을 자전거도로의 문제로 인식

❺ 자전거 위험에 대한 책임



- 평균 4.27로 자전거 도로환경에 좀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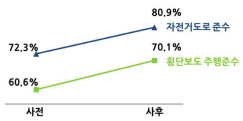
- 결과
  -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안전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
  - 자전거도로의 미분리 및 연계부족 문제와 자전거 위험에 대해 도로환경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 ➡ 지역사회가 자전거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결과를 알리고 제안한 필요

자전거 안전 이용 방안

유도선 효과 실험

- 대상 : 유도선 설치 2일간 4시-7시 사거리 자전거 이용자 251명
- 방법 : 2019. 6. 24-6.25.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사이를 연결하는 유도선 설치하고 주행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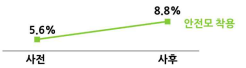


- 결과 : 유도선 설치 후 자전거도로 및 횡단보도 주행 준수 행동 증가

안전모 캠페인 효과 실험

- 대상 : 사거리 이용 시민 및 자전거 이용자
- 방법 : 2019. 6. 22-6.23. 안전모 착용 캠페인
  2019. 6. 24-6.25. 안전모 착용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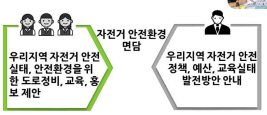


- 결과 : 안전모 캠페인 후 안전모 착용 행동 증가

자전거 안전환경 개선 면담

- 대상 : 시청 건설도로과 자전거팀 팀장님
- 방법 : 2019. 6. 26. 방문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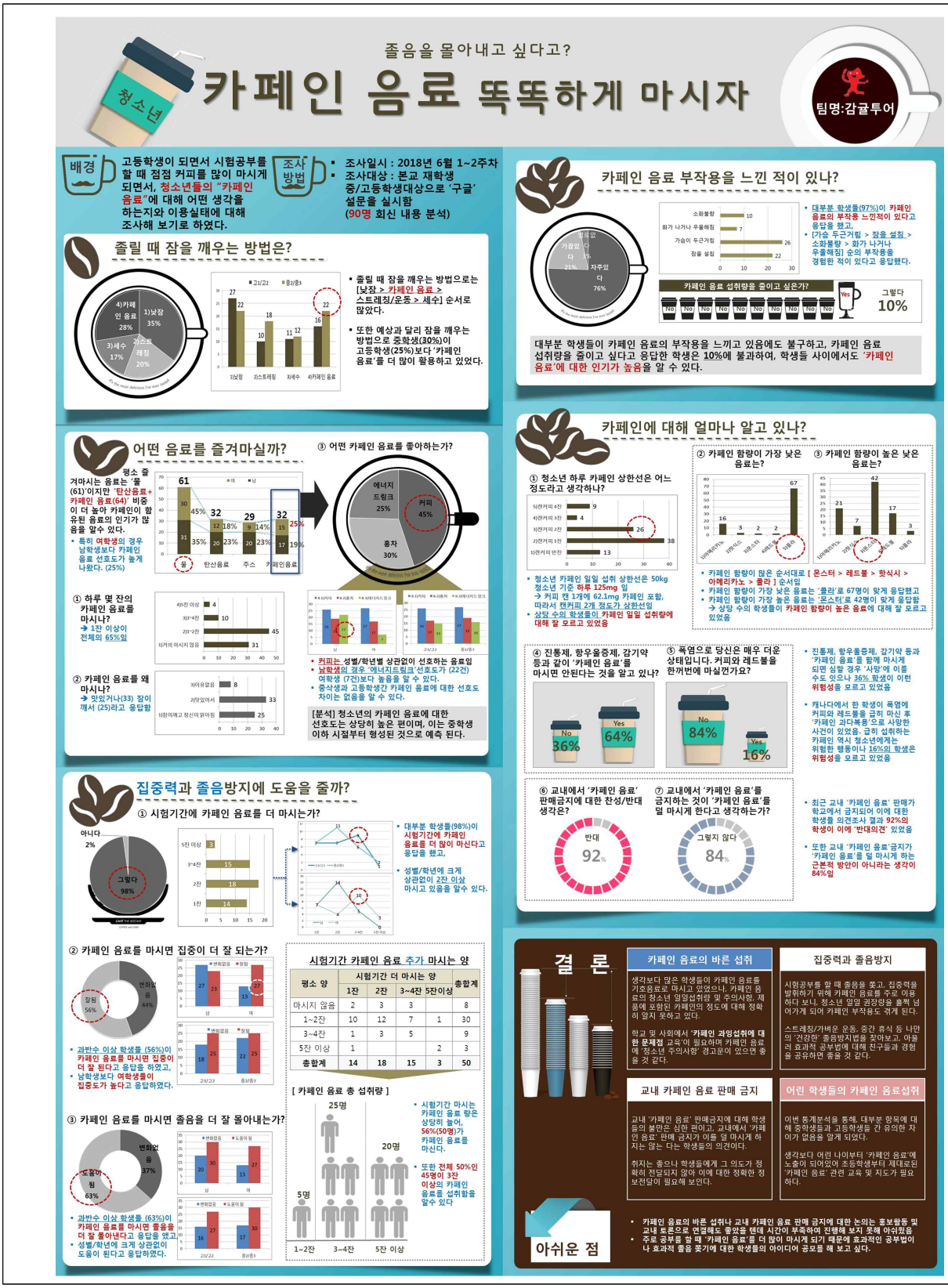


- 결과
  - 자전거 주행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라 평가하고 시정에 의미 있게 반영
  - 안전모 미착용 및 횡단보도 주행 위반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 및 유도선 설치 고려

탐구결론

- 자전거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자전거 도로환경이 미비하다는 우려를 하였으나 조사활동과 통계 결과를 통해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한다는 것을 확인
- 자전거 주행 실태 관찰을 통해 자전거도로 미이용, 횡단보도 주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문제를 발견하고, 유도선 설치와 안전모 캠페인을 통해 준수 행동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자전거 인식조사를 통해 자전거 안전규칙 미 준수의 문제와 자전거도로의 미분리 및 연계 부족, 도로폭 협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유도선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담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 통계를 통해 생활 속의 현상을 규명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경험

□ 고등학교 대상: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윤성현/지도교사 차민수)



□ 초등학교 금상: 서울 대명초등학교(조승범, 김환희/지도교사 김용성)



☐ 중학교 금상: 부산 해운대여자중학교(차효림, 김주은/지도교사 정주은)

해여 빅데이터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나의 생일

생일에 대한 직관적 판단과 확률의 모순

01 탐구주제

사람이 모인 수에 따라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

02 탐구동기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하나뿐인 날로 생각해 생일 네 자리 숫자를 비밀번호 등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과연 생일이 수학적으로 특별한 숫자일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일이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여 생일 속 수학원리를 탐구하게 되었다.

03 탐구방법

①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설문조사(186명, 2019.7.1.)
②가족(10명/20명) 생일조사
③강의를 듣는 대학생 생일 설문조사(30/60명, 부산 연제구소재, 2019.7.2)
④한국 가수 생일 인터넷 조사 (40/80명)
⑤병원 내원 환자 생일조사(100명, 부산북구소재. 2019.7.1)
⑥ ①~⑤의 인원 및 한국 가수 704명 총 1,150명의 생일을 23명씩 모집단 수를 10,20,50개 증가시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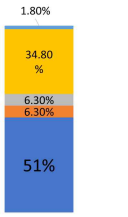
04 사전 조사

1. 중학교 학생들의 생일이 같을 확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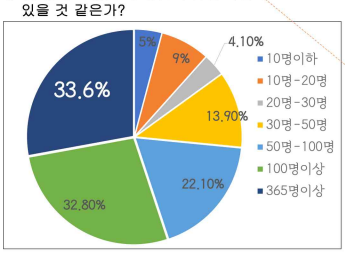
Q. 생일 같은 사람 만난 적 있나?



Q: 만나본 적이 있다면 몇 번?



Q: 몇 명이 모였을 때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가?



▶생일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나 5번 이하**로 만난 경우가 대다수(87.4%)
▶학생들(66.4%)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막연히 100명 이상이나 366명의 사람이 있을 때 같은 생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함.

2. Birthday Paradox-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학적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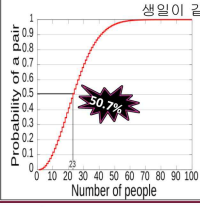
한 집단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는 최대값은 비둘기집 원리에 따라 366명이다(1년을 365일이라 가정). 하지만 아래와 같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 확률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n명의 생일이 다를 확률 p(n)을 생각해 본다.

$$p(n)=\frac{365}{365}*\left(1-\frac{1}{365}\right)*\left(1-\frac{2}{365}\right)*\cdots*\left(1-\frac{n-1}{365}\right)$$ 이것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p(n)=\frac{365!}{365^n(365-n)!}$$ 이 된다. (n!=1~n 까지의 곱)

생일이 같을 확률은 이 값을 전체(1)에서 뺀 값이다.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 = $1-\frac{365!}{365^n(365-n)!}$



n	P(n)
23	50.7%
...	...
40	89.1%
...	...
70	99.9%
366	100%

▶ 위의 식에 따라 23명의 사람이 모이면 절반의 확률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수가 증가할 수록 확률이 커져 70명이 되면 거의 **100%**에 가까워진다.

05 탐구활동

1. 실제로 생일은 얼마나 겹칠까?

1)집단의 인원수에 따라 같은 생일인 사람이 나타날 확률

인원수	10명	10명	20명	30명	30명	40명	40명	50명	50명	60명	80명	100명
	가족	가족	두가족	대학생	대학생	가수	가수	환자	환자	대학생	가수	환자
같은생일	X	X	O(1)	X	O(1)	O(2)	O(3)	O(3)	O(1)	O(3)	O(9)	O(9)

*괄호 안은 겹친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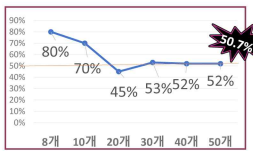
▶실제 **40명 이상 집단에서 거의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통계적 확률은 Birthday Paradox의 생일이 겹칠 수학적 확률(89.1%)과 유사하다. 해운대 여중 186명 중 생일이 겹치는 사람은 2명 겹치는 날짜(27개), 3명겹침(6개),4명겹침(1개)로 총 76명이었다.

2) 실제 생일 조사(통계적확률) vs Birthday Paradox(수학적확률)비교

▶중학교 1학년 8개 반을 23명 기준으로 생일을 조사하여 Birthday Paradox의 수학적 확률 p(23)-50.7% 와 일치하는지 조사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같은 생일	X	O(1)	O(1)	x	O(1)	O(1)	O(1)	O(1)

▶ 총 8개 반 중 6개 반에서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있었다
▶ 이는 80%로 **수학적 확률인 p(23)= 50.7% 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표본의 크기가 8개로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앞에서 조사했던 가족, 대학생, 환자, 한국 가수의 생일을 23명씩 나누어 총 50개 표본(1150명)을 조사했다



▶ **표본수가 커질수록** 오차가 줄어들어 실제 조사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50.7%)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생일 등 날짜를 비밀번호에 사용하는가?



52.2% 47.8%

▶ 중학교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일, 기념일등 날짜를 비밀번호에 **그대로** 하는 경우는 52.2%으로 **절반이상** 차지함

06 탐구결론

1)사람들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4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거의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

2)사람수가 많아질수록 생일이 같은 사람도 늘어나고 한 날짜에 생일이 겹치는 사람도 증가

3)**표본 수를 증가 시킬수록 통계적 감소**

4)생일,기념일의 경우 겹칠 수학적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생일은 비밀번호 보안성이 아주 낮다.**

07 탐구결론의 활용

1) **패스워드 보안강화:** 생일, 기념일이 아닌 0-9까지 숫자+문자(알파벳(26개))보다 한글(11,172개 선택)+기호와 섞어 다른 사람과 패스워드가 같을 확률을 낮춰야 함을 알 수 있다.

2) **생일물품제작 기업의 제품 생산 수량 예측 가능**

생일 관련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서 집단의 수에 따라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의 수를 예측하여 재고 없이 효율적으로 물품을 제작할 수 있다.

08 느낀점

생일에 대한 인간의 직관과 통계적, 수학적 확률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현상에 대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고등학교 금상: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김하린, 설채민, 유민지/지도교사 정지영)

당신의 노후는 안녕한가요?

–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라잡이

ELITE

Ⅰ.주제 선정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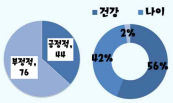
최근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생물학적, 정서적 측면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 현대 사회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 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대비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 시점에서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생각과 생각의 시발점, 그리고 준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또한 나이대별로 노후와 관련된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 설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 현 세대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노후를 대주제로 선정하였다.

Ⅱ.조사 방법

1.조사 방법 : 설문지
2.조사 대상 :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 00 여고 학생 120명 , 40대 이상 120명
그외- 00 여고 학생 120명
3.조사 기간 : 19.6.17~19.6.21(1차) 19.6.24~19.6.28(2차)

Ⅲ. 인식 조사

1. 노화



☞. 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120명 중 44명,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76명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노화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건강이 56%, 나이가 42%, 직장 유무가 2%로 건강의 비율이 제일 높았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 속 노화는 특정 나이 대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건강과 연관도가 높은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Ⅳ.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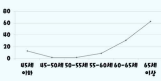
1. 인식 조사의 세부 사항

1) 노화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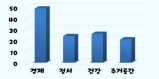
☞ 노화에 대한 인식(부정적, 긍정적 인식)이 생기게 된 원인)는 개인적 경험이 50명으로 약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31.6%(21명)로 두 번째를 차지 했다. 하지만 교과적인 학습은 6.6%(8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노화에 대한 기준 나이



☞노화에 대한 기준 나이는 65세 이상이 52.5% (63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60~65세가 약 26.6%(32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반면 45~50세와 50~55세가 약 1.6%(2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45세 이하인 10.8%(13명)보다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후에 대해 생각해본 요소



☞노후 대책에 대해 생각해본 요소로는 크게 경제, 정서, 건강, 주거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경제가 약 40.8%(49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경제, 정서, 건강, 주거 공간)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 주거공간이 17.5%(21명)으로 가장 낮을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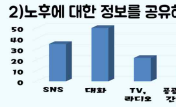
2. 노후 준비

1)본인의 노후대책에 대한 고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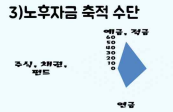
☞ 본인의 노후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무려 70명의 학생들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고, 50명의 학생들만이 생각해보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만약에 자신들이 이런 기회에 노후 대책을 강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진행하였다.

2)노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



☞ 학생들은 현재 노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나 미래에 공유하고 싶은 수단으로 약 41.7%에 해당하는 50명이 대화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SNS가 약 21.6%(35명) TV, 라디오가 약 18.3%(22명), 공공기관 간행물이 약 10.8%(13명)의 비율을 차지하였다.공공기관 간행물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3)노후자금 축적 수단



☞ 학생들은 미래에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단으로 약 43.3%에 해당하는 52명이 예금, 적금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연금이 약 30.8% (37명), 보험이 약 18.3%(22명), 주식, 채권 펀드가 약 7.6%(9명)의 비율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1) 현재 알고 있는 노인을 위한 정책은

☞ 학생들은 노인 복지금, 문화 ·여가생활 지원, 퇴직나이 연장, 직장에서 노인 일정 비율 유지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이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노인이 된 나를 위해 국가에서 제도를 통해 보장해주었으면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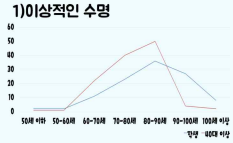
☞ 학생들은 노인을 필요로 하는 사회 분위기 및 구조가 형성되어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노인들이 사회 내에서 도태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외에도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 제도들이 시행된다면 미래에 노후를 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유언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

☞ 학생들은 죽음과 관련하여 인상 깊었던 표현에 '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죽음은 하나의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등의 표현을 이야기하였고, 평소 생각하는 유언이 있냐는 물음에 '내가 없더라도 일상대로 살아가기를' 등 남은 가족, 지인들을 위한 당부의 말이나 '사망 이후 화장하여 엄마와 함께 있게 해달라' 등 사망 이후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으로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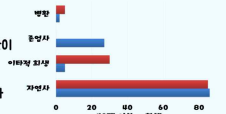
3. 죽음

1)이상적인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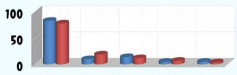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80~90세가 약 31.6%(38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50세 이하와 50~60세가 2.5%(3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도 80~90세가 약 41.6%(50명)이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50세 이하와 50~60세가 약 0.8%(1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바라는 임종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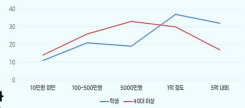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자연사가 약 71.6%(86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병원이 약 1.6%(2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도 자연사가 약 70.8%(85명)이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존엄사가 0%(0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3)사망에 이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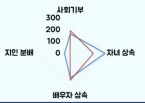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수면 중이 약 69.1%(83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식사 전후가 약 4.1%(5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도 수면 중이 65%(78명)이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50세 이하와 50~60세가 약 0.8%(1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4)자신에게 남겨질 재산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1억 정도가 약 30.8%(37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0만원 미만이 약 9.1%(11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도 5000만원이 27.5%(33명)이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50세 이하와 50~60세가 약 11.6%(14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5)유산의 쓰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자녀상속이 296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인 분배가 48점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도 배우자 상속이 3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지인분배가 2점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위부터 4위까지를 각각 3,2,1,0점으로 더한 값이다)

Ⅳ.결론 및 제언

1. 학생들과 40대 이상 성인들의 인식차이↑
- 많은 학생들은 노화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된 계기가 개인적인 경험과 매체를 통한 경험이라고 답했다. 죽음의 방법 중 하나인 안락사의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세상을 보는 기준과 그 때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학생들의 노후대비의 필요성 인지↓
-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학생들의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노후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지만 이에 반해, 노후를 대비하는 학생의 비율은 낮다. 따라서 노후 대비 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신의 노후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학생들이 노후를 위해 고려하는 요소의 비율은 경제>건강>정서>주거공간 순이다.
- 학생들은 노후에 경제적 수입이 중단되고 소비만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를 우선시 했다. 그리고 정서적 요소에 관해서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나 프로그램등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방안과 학생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현대인들의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